

# 동아시아 소화(笑話) · 속담(俗談)속의 동물조합 상징성 비교\*

김 영 진  
(한국의국어대학교)

## ❖ 국문초록

동물관련 관용어는 비유 상징코드으로써 각 문화권에서 일찍부터 발달되어 왔다. “인재가 쓰이면 호랑이가 되고 재야에 버려지면 쥐가 될 뿐.”이라고 역설한 동방삭(東方朔)의 동물조합 비유도 그러한 경우이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에서 호랑이를 거물급 탐관오리로, 쥐를 작은 탐관오리로 비유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상징성이 늘 고정불변인 것은 아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물조합 상징성이 보이는 이러한 상대성 및 가변성에 주목하면서 한중일 3국에서의 동물조합 상징성의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다음의 3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유사한 동물조합에 있어서 동물조합이 달라지는 변용과정에는 해당조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문화권마다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가령, 한국에서는 말과 소의 두 동물을 조합하였을 때, 그 두 동물사이의 ‘다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말과 소의 ‘가치’의 차이를 비교하는 관점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하였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6757)”なお、本稿は日本学術振興会の科学研究費助成事業（研究課題：東アジアの笑話と日本文学・日本語との関連に関する研究、研究課題番号：二四五二〇二四四）に、海外研究協力者として参加する成果の一部である。

두 번째로, 한국에 비해 중국과 일본에서는 두 동물의 외형적 행동적 특성을 의인화한 상징방식이 비교적 발달하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개는 남자, 닭은 여자.”처럼 동물의 종류가 남녀성별을 나타내거나 “갓 난 송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처럼 특정연령대를 의인화 상징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하였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 종류의 동물을 암수 한 쌍으로 조합시켜 남녀성별을 상징하는 방식이 비교적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동물신체 특성에 착안한 동물조합 상징이 한국에 비해 발달하였다. ‘용두사미’라는 중국 고사 성어에서의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의 조합이 그러하며, “용의 수염(역린)을 만지고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라는 일본 속담에서 보이는 신체부위 조합이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동물신체 조합을 통한 상징방식은 중국에서 일찍이 발달하였으며, 그 영향은 용, 기린, 봉황처럼 여러 동물의 신체부위 조합에 의한 상상속의 동물 탄생으로 나타난다. 동물조합은 동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동아시아(東亞), 소화(笑話), 속담(諺), 동물조합(動物組合), 상징성(象徵性)

## 1. 서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두 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대비시키는 조합방법은 상징비유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이고 동물조합은 하나의 상징코드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찌감치 이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마키아벨리는, “지도자에게는 사자의 힘과 여우의 속임수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설교한 바 있다. 또, 아직 통일되기 전의 고대 로마에서 로마인과 이탈리아인들이 서로 대립하였을 때, 이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상징인 황소가 로마인의 상징인 늑대를 빨로 찌르는 모습을 새긴 주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프랑수아들은 로마화 된 갈리아(gaulois)민족의 상징인, 악을 쫓는 존재로서의 수탉(gallus)을 로마제국의 승리의 상징인 독수리와 함께 회화작품 속에 그려 넣곤 했다. 프랑스의 집 지붕에 수탉 모양의 풍향계가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동양도 마찬가지이다. 겁이 무척 많아 개울을 건널 때 조심 또 조심했다는, 웅승이처럼 생긴 상상속의 동물 ‘유(猶)’와 코끼리처럼 생긴

‘예(豫)’를 한데 묶은 ‘유예(猶豫)’라는 표현은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또, ‘곰 같은 여우’라는 비유표현에서도 보듯, 동물조합은 우리들의 일상 언어생활 속에서 그 상징성이 빈번히 이용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성은 그 동물이 어떤 동물과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 또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원래의 상징성과는 전혀 다른 상징성을 보이기도 한다. 상징성의 상대성 및 가변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령,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호랑이는 대개 군자, 무신, 무서운 사람(악한), 용맹하고 강한 사람을 상징하지만, 일본에서는 ‘술주정꾼’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술을 먹으면 속된 표현으로 ‘개’가 되지만 일본에서는 ‘호랑이가 되는(虎になる)’것도 상징성이 가지는 이러한 상대성 때문이다.<sup>1)</sup> 또, 일본속신에서는 지진을 일으키는 나쁜 동물로 여겨지는 메기(鯰)가, 중국소화에서는 입이 커서 남의 흉을 잘 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나, 서양에서는 악마의 상징인 흑염소가 한국에서는 원기를 북돋아 주는 건강음식인 것도 역시 상징성의 상대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성을 의식하면서 각 문화권의 동물 상징을 바라보게 되면 종래의 고정적인 상징성과는 또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다. 이에 필자는 동물조합에서 보이는 상대성 및 가변성에 주목하면서 한중일 3국의 동물조합에 보이는 다양한 상징성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일양국의 소화와 한중일 3국의 속담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 장르에서 동물조합의 용례가 많이 보이며 두 장르가 상호 보완적인 자료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sup>2)</sup> 다만, 본 고찰에서는 한국소화

1) 미나가타 구마구스(南方熊楠)는, “『본초(本草)』에 의하면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으면 취하며, 그 이유는 개가 호랑이한테는 술(酒)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南方熊楠 『南方熊楠全集』 1卷, 平凡社, 1971. 10쪽. 또, 일본에서는 술을 여성언어로 조릿대, 즉 사사(笹)라고 하며 호랑이는 조릿대 혹은 대나무 숲에서 나오는 관개로 술에 취한 것을 “호랑이가 된다.(虎になる)”라고 표현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2) 소화는 무토 사다오(武藤禎夫)씨의 『하나시본 대계(断本大系)』 全二十卷에서 확인된 일본근세의 동물조합 관련소화와 마쓰에다 시게오(松枝茂夫)씨의 『역대소화선(歷代笑話選)』 中国古典文学大系 59卷, 平凡社 1970에서 확인된 중국의 동물조합 관련소화를 주 대상으로 삼았다. 속담은 기타무라요시카쓰(北村孝一)씨의 『故事俗信 ことわざ大辞典』 개정판(第二版), 小学館, 2012에서 확인된 일본의 동물조합속담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확인된 우리나라의 동물조합속담, 그리고 진기환 『중국인의 속담』 명문당 2008에 보이는 중국의 동물조합 속담이 그 대상이다.

가 비교대상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는 중국소화의 영향을 받은 일부를 제외하면, 동물조합이 조선소화집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sup>3)</sup> 그리고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한국 속담속의 동물조합을 포함한 한중일 속담비교라 할 수 있다. 이하 본문에서는 본 고찰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한중일간 유사 동물조합 상징과 의인화 동물조합 상징, 그리고 동물신체 상징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주를 참조 바람.)<sup>4)</sup>

## II. 유사 동물조합 상징비교

필자는 지금까지 동아시아 문화권의 다양한 동물조합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생성되었는지 주로 살펴 왔었다.<sup>5)</sup> 또, 그 후속작업으로서 각각의 동물조합들이 어떠한 상징성을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동물과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 해당 동물의 상징성은 상대적이며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다.

- 3) 동물조합이 한국소화에서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과 일본의 소화가 직접적인 이야기꾼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작되던데 반해, 한국 소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즉, 중국과 일본소화에서는 동물을 의인화한 지어낸 이야기가 자유롭게 창작되었지만, 한국 소화에서는 그런 경우를 찾기가 힘들다.
- 4) 동물속담을 비교문화의 관점에서 다룬 최근의 국내연구로는 전 태현 「말레이어 속담의 동물은유 분석 : ‘코끼리’, ‘물소’, ‘호랑이’를 중심으로」, 『동남아 연구』 25(1), 2015, 123~146쪽 및 김정환 「루마니아 속담에 나타난 동물의 상징과 민속학적 수용」 『동유럽발칸연구』 39(4), 2015, 39~68쪽을 들 수 있다. 특히 전태현씨의 연구는 본 동아시아 동물속담 비교연구가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와 연결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 내용 중 본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속담을 인용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Gajah sama gajah berjuang, pelanduk mati di tengah-tengah. 코끼리끼리 싸우면 사슴이 그 가운데에서 죽는다. / ‘Kerbau jangan dimaling orang, ayam jangan dimusangi 물소는 남에게 도둑을 맞아서는 안 되고, 닭은 사향고양이에게 잡아먹혀서는 안 된다. / ‘Biar mati ditangkap harimau, jangan mati digigit anjing. 호랑이에게 잡혀 죽을 지라도, 개에게는 물려 죽지 말라.)
- 5) 줄고, 「일본 속담(諺)속의 동물조합」, 『日本學研究』 46, 2015, 289~309쪽 및 「일본 소화(笑話) 속의 동물조합」, 『외국문학연구』 60호, 2015, 31~56쪽.

예를 들어, 『장자(莊子)』 내편(內篇) 제2편의 「제물론(齊物論)」에는 ‘뱀의 비늘(蛇蚘)’과 ‘매미의 날개(蚘翼)’, 즉 ‘사부조익(蛇蚘蚘翼)’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뱀이 움직이는 것도 비늘의 힘이며 매미가 나는 것도 날개의 힘이니 서로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매미(蟬)의 날개가 가지는 상징성을 긍정적으로 의식한 조합이라 할 수 있다. 매미가 가진 오덕(五德)을 본받고자 조선시대 왕들이 썼던 익선관(翼蟬冠)의 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때의 매미는 긍정적인 상징성을 보인다. 하지만 개구리와 조합을 이루는 순간 매미의 그러한 상징성은 순식간에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고 만다. 즉, ‘개구리 울음 소리’와 ‘매미 날개소리’의 시끄러움을 나타내는 ‘와명선조(蛙鳴蟬噪)’라는 고사 성어에서의 매미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존재일 뿐인 것이다.

이 점은 세월이 빨리 흘러감을 표현한 ‘우토총총(烏兔忽忽)’의 ‘까마귀(해를 상징)’와 ‘토끼(달을 상징)’의 조합에서도 역시 확인된다. 이 조합에서 토끼는 ‘달(月)’, 즉, 세월의 흐름을 상징할 뿐, 그 상징성에서 특별히 부정적인 면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교활한 토끼는 잘 사는데, 문덕을 쌓은 꿩은 불행에 빠진다.’는 내용에서의 토끼는 부정적인 상징성을 보인다.<sup>6)</sup> 또 같은 토끼와 꿩이라 하더라도 흰 토끼와 흰 꿩이 조합을 이루었을 때는 길조를 상징하는 제물로 인식된다.<sup>7)</sup>

하지만 이 방식 말고도 또 다른 접근 방식이 있다. 예를 들자면, ‘개와 닭’, ‘소와 말’ 같은 한중일 공통의 동물 조합이 각 문화권에서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다.”처럼 두 동물의 대립적 관계성과 개의 실패를 상징하는 형태로 닭과 개가 조합을

6) (有兔爰爰雉離千羅, 我生之初尚無為我, 生後縫此羅尚寢無叱.) 『시경(詩經)』 「토원(兔爰)」 토끼를 교활하다고 보는 이유는 굴을 3개 이상 파기 때문이다. “교활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이 있고, 군사(軍師)는 세 가지 방책이 있다.(狡兔有三窟、軍師有三策/ 『중속』 480쪽)”

7) (고대에는 흰색의 동물을 상서(祥瑞)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으니, 대체로 주공(周公)이 섭정할 때 월상국(越裳國)이 흰 꿩을 바친 이후로 그러하였다. 흰 이리가 황복(荒服)의 들에 나타나자 목왕(穆王)이 이를 잡아 왔고, 흰 토끼가 부리(苻離)의 밭에 나타나자 한퇴지(韓退之)가 이를 칭송하였는데, 이번에 또 흰 사슴을 잡아 이를 상서로 여겼으니,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무엇에 근거하여 나온 것인가?)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 (『홍재전서』 제116권 경사강의(經史講義) 53 ○강목(綱目) 7 [진 선제(陳宣帝)])

이룬다. 한편 중국에서는 “좋은 개는 닭을 물지 않고, 사내대장부는 아내를 때리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닭과 개의 조합이 부부의 관계성을 상징한다. 또, 닭과 개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촌락이 이웃해 있는 정경을 묘사한 ‘계견상문(鷄犬相聞)’이라는 표현이 『노자(老子)』 第80章 「소국 과민장(小國寡民章)」에는 보인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밤에 개와 닭이 울면 화재 등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미신(“닭과 개의 울음소리로 길흉을 안다.(鷄犬の聲、吉凶を知る)”)으로써 두 동물의 조합이 이용되기도 한다.([그림1] 참조)<sup>8)</sup>



[그림 1]

그리고 이상에서 한중일 3국에서 개와 닭의 조합이 저마다 다른 상징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국 공통의 동물조합은 그 용례가 돼지, 개, 소, 말, 호랑이, 용 등 특정 동물들의 조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 그 하나의 용례만으로 각 문화권에서의 해당 동물의 상징성을 규정짓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을 병용하여 한중일 3국의 동물조합을 분석, 그 상징성의 문화권별 차이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러면 먼저, 한중일 3국의 말과 소 관련 동물조합을 보자. 한국 속담에는 말이 삼은

소의 짚신처럼 일이 뒤죽박죽되어 못쓰게 되었다는 의미의 “말 삼은 소 신[짚신]”이라고 하는 말과 소의 조합이 보인다. 이 조합은 말과 소의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한 경우이다.

왜냐하면 소는 발굽의 앞쪽이 갈라졌지만 말은 뒤쪽이 갈라졌다. 이 속담대로 말이 자신에게 맞는 말발굽 편자방향(U자 트인 쪽이 뒤쪽을 향함.)대로의 신을 만들게 되면 발굽 앞쪽이 트인 소는 그 신을 도저히 신을 수가 없다.

8) 에도시대 때의 화가인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1760-1849))의 작품이다. 또, 오시마 다테히코(大島建彦)씨의 「십이지와 일본인(十二支と日本人)」 国立国会図書館 국제 어린이 도서관 강연회 발표요지 2004.1.22,16-17쪽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밤에 닭이 울면 화재가 일어난다는 미신이 있다고 한다.

피차간에 아무 관련성이 없이 얼토당토않음을 이르는 표현인 “말살에 쇠빠다귀” 역시 말과 소의 차별성과 뒤죽박죽인 상태를 상징하는 조합의 한 예이다. 한국 속담에 있어서 말과 소의 조합은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두 동물의 ‘다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속담에서는 말과 소의 조합이 두 동물의 ‘가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타인에게 소 한 마리를 받았으면, 그에게 말 한 마리로 갚아야 한다.(得人一牛, 還人一馬/진 기환 『중국인의 속담』 명문당, 2008, 723쪽. ※ 이하 『중국인의 속담』은 『중속』으로 약칭함.)” 나,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소를 빼앗으면 자기 집에 있는 말이 도망간다.(貪得他人牛, 失去自家馬/ 『중속』 797쪽)”가 그러하다.

“말을 타지 않고, 소도 타지 않고, 작은 나귀를 타고 중간에서 큰 흐름을 따라간다.(不騎馬, 不騎牛, 弄個毛驢兒在中階大流/ 『중속』 293쪽)” 거나, “상등의 말을 타고 어중간한 소를 쓰는데, 사람은 하등인을 부린다.(騎馬上等馬, 牛用中等牛, 人使下等人/ 『중속』 336쪽)”라는 속담 역시 그러하다. 중국 속담에서 말과 소의 조합은 말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와 소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주로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말과 소에 대한 중국인의 이러한 가치 평가는 돼지(豚-도), 개(犬-개), 양(羊-걸), 소(牛-웁), 말(馬-모)을 묶어 놓은 윗놀이의 동물조합에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여媧(女媧)전설에 윗놀이의 동물조합이 이미 보이는 것으로 보아, 소와 말에 대한 이러한 가치 평가는 그 역사가 깊다 하겠다.<sup>9)</sup> 소와 말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둘은 분명

9) 여媧가 정월 초하루에 닭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개, 양, 돼지, 소, 말을 만들고, 7일째에는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 전설 덕분에, 고대 중국에서는 초이레에는 사람에게 대한 처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한다.(女媧在造人之前, 先於正月, 初一造出雞, 初二造出狗, 初三造出羊, 初四造出豬, 初五造出牛, 初六造出馬, 到了初七這一天, 才仿照自己的樣子, 造出一個個小泥人.) 『太平御覽』 卷360 「風俗通」 인용은 李昉의 撰 『太平御覽』 1-9上海古籍出版社, 1994. 다만, 왜 이러한 배열순서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중국속담에서 동물들의 임신기간에 따라 동물을 배열한 조합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발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고양이는 3개월, 개는 4개월, 돼지는 5개월, 양은 6개월, 소는 10개월, 말은 11개월(貓三狗四豬五羊六牛十馬十一 / 『중속』 607쪽) 하지만 실제로는, 개의 임신기간이 약 2개월, 돼지가 4개월, 양이 5개월, 소가 10개월, 말이 11개월이다. 윗놀이에서는 돼지와 개, 중국전설에서는 개와 양과 돼지의 순서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이 같은 동물조합배열이

비슷하지만 다른 동물이라는 ‘다름’에 한국인이 주로 주목하였다면, 중국인은 소와 말의 ‘가치’의 차이에 보다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속담에서는 한중 양국 속담의 상징성들이 모두 확인된다. “소는 소끼리 말은 말끼리(牛は牛連れ、馬は馬連れ)”처럼 유유상종을 나타내는 ‘종류 차별성’과, “말을 소로 바꿔 타다.(馬を牛に乗り換える)” 또는, “소를 말로 바꿔 타다.(牛を馬に乗り換える)”라는 ‘가치 차별성’이 그렇다.<sup>10)</sup>

다음 경우 역시, 그러한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이다. “호랑이 없는 산에서는 원숭이가 대왕 노릇한다.(山中無老虎、猴子称大王/ 『중속』736쪽)”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백수의 대왕인 호랑이가 없으니 그보다는 격이 낮은 원숭이들의 왕<sup>11)</sup>이 대왕 노릇을 대신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때의 호랑이와 원숭이는 물론 그 격이 다르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이 “호랑이 없는 골에서는 토끼가 왕.”이라는 한국 속담이다. 원숭이가 토끼로 바뀐 것은 한국문화에서 토끼와 호랑이가 흔히

동물의 임신기간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결과일 가능성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한편, “어디서 굴러먹던 말 뼈다귀인지 모를 놈.(どこの馬の骨かわからないやつ.)”라는 일본어 표현이나, “죽은 말의 뼈를 산다.”는 중국 고사에서 보듯, 말 뼈다귀의 경우, 쓸모없거나 낮은 가치를 상징하기도 한다. 즉, 좋은 말을 얻기 위해 아무 쓸모도 없는 죽은 명마의 뼈를 비싸게 사 소문을 냈다는 『전국책(戰國策)』의 고사에서 말 뼈다귀에 대한 중국인들의 가치평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한편 소 뼈다귀의 경우, 거북의 등껍질과 소뼈를 조합한 ‘갑골(甲骨)문자’라는 조합에서 보듯, 점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말 뼈다귀와는 달리 높은 가치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조조가 먹을 것은 없고 버리기는 아깝다고 했던 ‘계륵(鷄肋)’ 역시 낮은 가치를 상징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10) 차선책을 강구한다는 뜻의 “누령소를 말 대신 탄다.(把黄牛当馬騎 / 『중속』 262쪽)”라는 속담이 중국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속담이 중국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이처럼 단어순서만 뒤바뀌는 쌍둥이 속담의 파생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속담에서도 빈번히 목격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鯨魚打架、蝦子裂背 / 『중속』 769쪽)”는 중국속담이 한국에서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로 바뀐 경우가 그러하다. 또, 여우가 죽으니 다음은 자기 차례라 토끼가 슬퍼한다는 ‘호사토비(狐死兔悲)’와 그 쌍둥이 속담인, 토끼가 죽으니 여우가 슬퍼한다는 ‘토사호비(兔死狐悲)’의 경우, 어디에서 파생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역시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다.

11) 『서유기(西遊記)』의 미후왕(美猴王) 손오공을 떠올리면 중국에서 왜 하필 원숭이가 호랑이와 조합을 이루었는지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조합을 이루기 때문일 것이다. “산중에 맹수가 없으면 여우가 어른이 된다.(山中無猛獸、狐狸也為尊 / 『중속』 736쪽)”라는 유사한 중국속담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속담 “용이 없는 바다에는 메기가 꼬리를 치고, 호랑이 없는 산골에는 여우가 선생질을 한다.”도 그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여우가 호랑이와 조합을 이루게 된 것은 ‘호가호위(狐借虎威)’라는 고사성어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해가 짙짙 내리쬐는데도 내리는 비를 여우비(狐雨)라 하고, 이 때 여우는 시집가고 호랑이는 장가간다고 표현하는 것 역시 그러한 발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호랑이와 조합을 이루는 동물이, 중국에서는 원숭이 혹은 여우였는데, 한국에서는 토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호랑이와 원숭이, 호랑이와 여우의 관계는 신분서열, 즉, ‘격’의 차이를 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 속담에서의 호랑이와 토끼는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역학 관계를 나타낸다.

한편, 이와 유사한 일본속담으로는, “매가 없는 골에서는 박쥐가 왕(鷹のない里の蝙蝠)”이나, “매 없는 세상에서는 참새가 매노릇 한다.(鷹の無い国では雀が鷹をする)”, 또는, “매 잠잘 때, 새나 참새가 떠든다.(鷹いねぶるとき、鳥雀かまびす)”를 들 수 있다.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기에 매가 호랑이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합을 이루는 동물도 같은 조류계통인 박쥐나 참새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 강경파를 ‘매파’, 온건파를 ‘비둘기파’라 표현하는 경우의 현대적인 관계 상징성과는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보인다.

즉, 이 속담에 있어서 매와 박쥐는 단순히 약육강식관계의 강자와 약자라는 상징성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매와 박쥐의 조합에는 두 동물에 대한 일본인들의 ‘가치평가’가 또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근세 소화집 『신사쿠 가라쿠속고(新作 可楽即考)』에서는, “백관(百貫)에 사 들인 매도 실제로 사냥을 시켜보지 않으면 학을 잡을지 박쥐를 잡을지 그 위덕을 모르는 법.”이라는 표현이 있고,<sup>12)</sup> 이때의 박쥐는 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sup>13)</sup>

12) (百貫で買ふたる鷹も、拳を切って離さねば、鶴をとるやら、蝙蝠をとるやら、その威徳が分からぬのどうり。) 武藤禎夫 『新本大系』第16巻, 東京堂出版, 1979, 78쪽.

참새 역시 ‘낮은 가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는 박쥐와 비슷하다. 참새가 매와 조합을 이루게 된 것은 일본에서 학과 참새가 전통적으로 조합을 이루기 때문일 것이다.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 시끄럽게 중구난방 떠들어대기만 하는 것 보다는 무게감 있는 인물의 한 마디 말로 모든 일이 수습된다는 의미의 “참새의 천 목소리, 학의 일성.(雀の千聲、鶴の一聲)”이라는 일본 속담이 그렇다. 참새는 시끄럽고 천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군계일학(群鷄一鶴)’이라는 중국 고사 성어에서의 닭이 일본에서는 참새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닭은 학에 비해 낮은 ‘가치’를 상징한다.

한편, 참새의 낮은 ‘가치’는 기러기와 조합에서도 나타난다. “멀리 있는 기러기 보다는 바로 앞의 참새가 낫다.(先の雁より手前の雀)”나, “참새그물로 기러기를 잡다.(雀網で雁)”라는 일본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새는 기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제비, 참새가 어찌 큰 기러기와 고니의 뜻을 알리오.(燕雀焉知鴻鵠之志 『중속』 364 쪽)”라는 중국 고사 성어를 보아도 곧 알 수 있는 것이다.<sup>14)</sup>

이상에서, 한국에서는 호랑이와 조합을 이룬 토끼가 ‘약자’로서의 상징성을 주로 보이는 반면, 일본에서는 매와 조합을 이룬 박쥐와 참새가 약자라는 상징성 외에도 ‘낮은 가치’의 새라는 상징성을 보인다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호랑이와 원숭이, 학과 닭의 조합에서 보이는 중국 속담의 상징성은 일본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속담에서는 참새가 봉황과 조합을 이루는 경우도 보인다. “참새 천 마리가 봉 한 마리 못 당한다.”는 속담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때, 봉황은

13) 이십우화에서 보이던 박쥐의 기회주의자로서의 이미지가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명나라의 소화집인 『소부(笑府)』에서는 박쥐가 봉황과 기린 사이를 오가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으며, 여기에서 동서양 간의 상이한 동물조합의 차이를 또한 확인할 수 있다.

14) 중국에서 기러기의 지위가 높은 것은 명청(明清)시기의 문관(文官)의 예복에 달린 ‘보편(補片)’이라 불리던 흉배에 그려진 새들 중 기러기가 그 4번째 서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서도 또한 알 수가 있다.(一品官: 학(鶴)/二品官: 금계(錦鷄)/三品官: 공작(孔雀)/四品官: 기러기(雁)/五品官: 흰꿩(白雉)/六品官: 해오라기(鷺)/七品官: 원앙(鴛鴦)/八品官: 메추리(鶉)/九品官: 삼광조(三光鳥))

왕, 참새는 백성이라는 신분을 각각 상징한다. 그것은, 폭정으로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내몬다는 뜻의, “깊은 연못으로 고기를 몰고, 덩불 속으로 참새를 쫓다.(為淵驅魚、為叢驅雀 / 『중속』 509쪽)”라는 피지배계층 입장을 대변한 중국속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용도 얕은 물에서는 새우에게 놀림을 당하고, 봉황이 덩불 속에 들어가면 참새에게 무시당한다.(龍逢淺水遭蝦戲、鳳入深林被雀欺 / 『중속』 786쪽)”라는 사대부 계층의 입장을 반영한 중국속담도 있는 것으로 보아, 봉황과 참새의 조합은 중국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새(雀)와 제비(燕) 중 누가 빈 집의 진짜 주인인가를 놓고 새의 왕인 봉황(鳳凰)앞에서 논쟁하는 내용의 「연자부(燕子賦)」도 그러한 가능성의 한 근거이다.<sup>15)</sup> 따라서 한국 속담에 보이는 봉황과 참새의 이러한 ‘격의 차이’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지 한국 속담본래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참새가 천 마리(혹은 백 마리)면 호랑이 눈도 빼 먹는다.”와 같은 동물조합 속담이 한국에서 새로 과생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속담에서의 시끄럽고 격이 낮은 천 마리 참새의 상징성이 한국의 이 속담에서는 전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참새들의 본거지인 덩불로 들어와 힘을 쓰지 못하는 봉황의 모습이, 대동단결의 집단성을 보이는 천 마리 참새에게 눈알을 파 먹히는 호랑이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오합지졸 혹은 중구난방이던 참새의 이미지가 일본과는 정반대가 된다. ‘낮은 가치’를 상징하던 참새가, 호랑이와의 조합에 의해서 그 상징성이 일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급 간 혹은 계층 간의 대립적 관념이 이 같은 속담에도 나타나는 점은 흥미롭다 하겠다.

그리고 원래의 상징성이 정반대로 달라지는 이런 모습은 한국 속담에서 특히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토끼 두 마리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다.”라는 서양속담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그렇다. 물론,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속담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처음부터 뱀장어로 태어났다면 결코 용이 될 수 없다.(天生的黃鱔成不了龍 / 『중속』 174쪽)”라는 속담과 더불어, “까마귀 둥지에서 봉황이 나오다.(烏鴉窩裏出鳳凰 / 『중속』 704쪽)”라는 정

15) 즐고, 「동아시아의 세 사람 주령(酒令)형 소화」, 『동양학』 57, 2014, 26쪽.

반대되는 의미의 속담이 중국에는 있다. 일본에도, “개구리 새끼는 메기가 될 수 없다.(蛙の子は鯰になれぬ)”라는 속담과 더불어, “소리개가 매의 새끼를 낳는다.(鷹が鷹の子を産む)”라는 상반되는 의미의 속담이 역시 있다. 한국의 “범이 개의 새끼를 낳지는 않는다.”와, “미꾸라지 용 됐다.”도 역시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동물조합 속담이 병존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sup>16)</sup>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중국 속담에서는 용이 될 수 없는 비천한 존재로 그려졌던 뱀장어가, 미꾸라지로 달라지긴 했지만 한국 속담에서는 정반대의 상징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중국속담속의 용과 뱀장어의 조합과 한국 속담의 용과 미꾸라지의 조합은, 속담의 의미와 형태는 서로 유사하면서도 그 의미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반되는 속담이 파생되는 현상은, “호랑이는 배가 고파도 풀을 뜯지 않는다.”라는 한국 속담의 전개양상에서도 또한 확인된다.

“호랑이는 굶어도 죽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虎は飢えても死したる肉を食わず)” 또는, “매는 굶어도 이삭을 움켜쥐지 않는다.(鷹は飢えても穂を摘まず)”와 같은 유사속담이 일본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속담은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에서 공유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호랑이의 이러한 상징성이 뒤집히는 현상이 한국 속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범도 궁하면 가재를 잡아 먹는다.”가 바로 그렇다.

원래 이 속담은, “곰 가재 뒤 듯[잡듯].”<sup>17)</sup>이라는, 곰의 찬찬한 천성을 드러낸 긍정적 의미의 속담을 변용시킨 경우이다. 한국에는 옛날이야기의 서두에, “옛 날 옛 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표현이 있으며, “범이 담배를 피우고 곰이 막걸리를 거르던 때.”라는 관련 동물조합 속담이 있다. 호랑이와 곰의 이러한 조합은 아마도 단군신화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호랑이와 가재가 등장하는 한국 속담에서의 호랑이의 상징성 역시 단군신화에 보

16) 또한 이러한 형태의 속담은 말레이 속담에서도 확인된다. Anak kucing menjadi harimau. 고양이 새끼가 호랑이가 되다; 평민이 고관대작이 되다. / Anak harimau takkan menjadi anak kambing. 호랑이 새끼는 염소 새끼가 되지 않는다.) 전태현, 앞의 글, 137-139쪽.

17) 움직임이 둔한 곰이 개천 돌을 뒤쳐 가며 가재를 잡는다는 뜻으로, 급하다는데 느릿느릿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침착하게 일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는 ‘호랑이와 꿈’의 이미지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참을성 없는 성격으로 묘사되는 단군신화의 호랑이에 비해, 꿈은 참을성 있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흔히 그려진다. 그리고 이때, 가재는 꿈의 참을성과 성실성을 돋보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가재는 호랑이에게 있어서는 그 체면과 권위를 내리 깎는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호랑이가 가재를 찾은 것은 죽은 고기를 찾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새로 파생된 한국 속담에서의 호랑이의 상징성은 원래 속담속의 그것과는 정반대가 되고 마는 것이다.

### III. 동물조합 의인화 상징비교

#### 1. 기질 특성 상징

이번에는 동물조합의 의인화 상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에도시대에 간행된 『가고미미(籠耳)』(1687년)권3, 「매가 솔개를 낳다(鷗生鷹)」에는 동물의 의인화 상징을 다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중국인과 일본인들의 동물조합에 관한 생각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보기 드문 자료이다. 그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남의 자식이 그 부모보다 뛰어난 것을 칭찬할 때, ❶솔개가 매를 낳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가 있다. 새 따위에 비유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삼가시라 말하자, 어떤 사람이 말하길,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에서도 남의 자식을 칭찬하여 ❷용의 알, 봉황의 새끼라고 말했고, 그 외 성인을 ❸기린, 봉황에 비유했어요. 한나라 고조는 태어날 때부터 무섭게 생겨 얼굴이 용 같기에 한고조를 용안(龍顏)이라 비유했기에 이를 천자의 이름으로 삼았고요. 용의 목 아래에 길이 30센티미터 정도 되는 역린(逆鱗)이 있어, 사람이 여기를 건들면 목숨을 잃지요. 신하도 주군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 것을, 용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표현하기에 천자의 진노를 역린이라 하죠. 『사기(史記)』의 「한비자전(韓非子傳)」에 보여요. (A)일본에서도 귀인의 한 마디를 ‘학의 일성(鶴の一声)’

이라고 하고, 실력과 재주가 있는 남자를 ‘지느러미가 있는 남자’라고 하고, 야원 사람을 ‘은어 같다’고 하고, 무사의 의리와 인정을 아는 사람을 ‘귀신의 눈에도 눈물’이라고 하는 예가 얼마든지 있는데, 너무나 흔히들 쓰는 속어라 그다지 귀에도 안 들어오죠. 하지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쓸지를 판단해야겠지요.”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을 짐승에 비유 하는 게 안 좋다면, 바로 이름에다 붙이는 건 어때요? 중국에서는 ④공자의 아들을 잉어(鯉魚)라고 하고, 싯토(邳都)라고 하는 사람을 참매(蒼鷹) 인정사정 안 봐주는 서슬 퍼런 관리)라고 하죠. 일본에서도 가까운 예를 들자면, 사람의 이름을 ⑤이노시시(멧돼지)자에몬(猪左衛門), 구마(곰)우에몬(熊右衛門), ⑥우시(소)노스케(牛之介), 우시(소)노 조(牛之丞), ⑦이누(개)치요(犬千代), 도라(호랑이)마쓰(虎松), ⑧오쓰루(학) 오카메(거북)라고 하죠. 모두 삼가야 할까요? 그보다 한술 더 떠 신불(神佛)의 이름조차도 ⑨소머리 천황(牛頭天皇), 말머리 관음(馬頭觀音), ⑩낙지 약사여래(蛸藥師), 호랑이 약사여래(虎藥師)라고 있지요.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답니다. 정말이지 동물이름 붙이면 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풍자하여 새나 가축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지요. (B)남 부추기는 사람을 굴뚝새라고 하고요, 작은 체구 남자를 할미새라고 해요. 들떠 유곽을 돌아다니는 사람을 수달이라고 하고, 굵고 조용한 사람을 어둡속의 검은 소라고 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을 큰 부리밀화부리 새(桑鳥火-마메마와시(桑馬), 이카루(イカル). 콩을 입에 물고 머리를 빙글빙글 돌리는 습성이 있음.)라고 하고, 말이 전혀 없는 사람을 소도둑이라고 하죠. 또 사람의 이상한 외모에 대해서는, (C)말 얼굴(얼굴이 긴 사람), 말갈기 머리(미상?), 멧돼지 목(목이 짧은 사람), 토끼 입(입이 언청이 같이 찢어진 사람), 원숭이 눈(슬쩍 남을 훑쳐보는 사람), 귀신 이빨(이가 빠드렁니인 사람), 개미허리(허리가 날씬한 사람), 비둘기 가슴(봉긋 튀어나온 큰 가슴의 사람), 고양이 등(등이 활처럼 휘 사람), 원숭이 손(엄지손가락이 안 굽혀지는 정중신경마비증세의 사람), 모기 다리(다리가 가는 사람), 개처럼 없드리기(아부하는 사람), 닭의 눈(야맹증 걸린 사람), 닭살(피부가 소름 돋듯이 돋은 사람), 너구리 잠자기(사람 속이려고 자는 척 하는 사람), 소처럼 앉고 말처럼 서기(앉아있기 좋아하는 사람. 소는 보통 앉기를 좋아하고 말은 서기를 좋아한다.(寢牛起馬)), 메추리 여행 떠나기(준비 없이 갑자기 여행 떠나는 역마살 긴 사람), 땅강아지 웃음(소지 금액이 한 푼도 없는 사람. 땅강

아지의 일본어 발음인 게라(けら)는 웃음소리의 의성어인 게라(けら)와 동  
음.), 이런 따위가 끝도 없는 것이지요.”<sup>18)</sup>

② 용의 알과 봉황의 새끼(홀륭한 자식)와 ③ 기린과 봉황(성인)은 중국의 전통적인 동물조합이다. ④ 잉어와 참매(관리)에서 잉어라는 이름은 공자가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군주로부터 잉어를 하사받았기 때문이며, 잉어가 서슬 퍼런 엄한 관리를 상징하는 참매와 서로 조합을 이룬 것은 관리로의 출세를 상징하는 등용문고사를 의식한 연상의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의인화 동물조합 상징의 경우, ① 솔개와 매, ⑤ 멧돼지와 곰, ⑥ 소와 소, ⑦ 개와 호랑이, ⑧ 학과 거북, ⑨ 소와 말, ⑩ 낙지와 호랑이가 보인다. ①의 솔개와 매는 일본속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출어람청어람(靑出於藍靑於藍)’을 나타낸다. ⑤의 멧돼지와 곰은 일본의 모모타로(桃太郎) 이야기와 긴타로(金太郎)의 용력발휘 이야기에서 나오는 두 동물이 조합된 결과이

18) (人の子の親にまさりて發明なるをほむるとて、鴟が鷹うんだと人ごとにいふ事あり。鳥類にたとゆる事よからぬ事なれば、遠慮すべき事也といへば、ある人のいへるハ、すこしもくるしからぬこと也、もろこしにも人の子をほめて、龍の卵、鳳凰の雛といえり、そのほか聖人を麒麟鳳凰にたとへ、漢の高祖ハむまれつきおそろしくして、顔龍のごとくなるゆへ、高祖を龍顔といひしより、天(八オ)子の名とせり、龍ハ喉の下に、たけ壱尺ばかりの逆鱗あり、人これにふるゝときハ命をうしなふ、臣も君の御機嫌をそむくときハ命をうしなふ事、龍の逆鱗にふるゝがごとしといふころにて、天子の怒を逆鱗といふ、これも天子を龍顔といふよりおこりたることバ也、史記韓非が伝にミへたり、日本にて、貴人の一言を鶴の一こゑといひ、器量よきを鰭のある男といひ、やせたる人を鮎の魚のやうなといひ、侍のなさけあるを鬼の目にもなみだといふたぐひ、いかほどもあれど、いひつけたる俗語なれば、さのミ耳にもたゝず、されども所によりて用捨すべき事也。又ある人のいへるハ、人を禽獸にたとゆるをいまば、すぐに名につくハいかゞせん、もろこし孔子の御子を鯉魚といひ、邳都といふ人を蒼鷹といふ、日本にてちかくいハ、人の名に猪左衛門、熊右衛門、牛之助、牛之丞、犬千代、虎松、お鶴、お亀などいふ、みないむべきにや、それよりなを神仏の名にさへ、牛頭天皇、馬頭観音、蛸薬師、虎薬師とてあり、いんや人をやといえり。まことにいへばいゝもの也。人を諷じて鳥類畜類にたとへたる事もあり。唆人を鷓鴣といひ、小男を鶺鴒といひ、(米+告)人を水鼯といひ、閑な人を闇の牛といひ、躁人を桑鳥の火といひ、黙人を牛盜といふ、又人の異相につてハ、馬顔、馬髮、猪頸、兔缺、猿眼、鬼齒、蟻腰、鳩胸、猫背、猿手、豹脚、犬蹲、鷄膝眼、鷄膚、狸寝、牛起、鶉立、螻蛄笑、このたぐひかぎりもあるべからず。) 武藤禎夫『新本大系』第4巻、東京堂出版、1979、246卒。

다.<sup>19)</sup> 이노시시(멧돼지)자에몬과 구마(곰)우에몬에서의 에몬은 일본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에서 보듯 에도시대에 쓰였던 전형적인 인명형태로, 멧돼지 좌측문집 양반, 곰 우측문집 양반 정도의 인명이라 보면 되겠다.

⑥우시노스케(소)와 우시노조(소)의 '스케'와 '조'도 인명형태이다. 첫째와 둘째를 이치로(다로)와 지로라고 이름 붙이는 것처럼 명명하는 식이다. 우리말로는 '쇠돌이', '쇠뿔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⑦이누치요(개)와 도라마쓰(호랑이)는 각각 도요토미(豊臣)가문의 충신 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와 도쿠가와(徳川)가문의 충신 이이 나옴사(井伊直政)의 어릴 적 이름이다. '지요(千代)'는 천대, 천년을 누리는 장수를 의미하고 '마쓰(松)'역시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상징한다. 멸망한 도요토미 가문과 승리한 도쿠가와 가문의 관계 상징성은 개와 호랑이 이름의 조합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⑧은 천년을 산다는 학과 만년을 산다는 거북의 전통적인 조합이며, ⑨는 일본 신도(神道)의 두 신인 기온정사(祇園精舎)의 고즈텐노(牛頭天皇-소머리 천황)와 말의 수호신인 바토간논(馬頭観音-말머리 관음)의 조합이다. 소머리와 말머리는 지옥의 옥졸인 '고즈(牛頭)'와 '메즈(馬頭)'를 의식한 조합으로 불교적 관념세계의 반영이다. 참고로, 중국소화에서는 '양머리(羊頭)'와 '돼지머리(豚頭)'의 조합이 흔히 보이는데 이 경우는 신에게 바칠 제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며 한국에서 고사상에 돼지 머리를 놓는 풍습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⑩의 낙지와 호랑이 조합은 약사여래와 관련이 있다. 낙지의 경우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먹물을 뱉고 캄캄한 속에서도 도망칠 수 있기에 눈이 밝다고 여겨진다. 눈병을 고쳐주는 약사여래로 모셔지는 이유이다. 또 낙지의 흡반은 몸에 난 종기나 다래기 따위를 떼어내 준다는 속신도 있다. 한편, 호랑이가 약사여래와 연결된 것은 홍법대사(弘法大師)가 천황의 명으로 만든 약사여래상이 인일(寅日), 인시(寅刻)에 완성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일본인들은 호랑이해에는 도라(호랑이) 야쿠시지(虎薬師寺)를 참배하여 무병장수를 기

19) 줄고, 「일본도상(圖像)문화를 통해 본 동물조합의 방법과 의미-언어유희·미타테(見立て)·복합을 중심으로-」, 『비교 일본학』 34, 한양대학교 2015, 33-34쪽.

원한다. 여기에서 낙지와 호랑이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전혀 없이, 다만 연상 연결 고리인 약사여래를 통하여 조합을 이루었을 뿐이다.<sup>20)</sup>

의인화 상징에 있어서는 본문A에서 귀인을 학, 실력 있는 남자를 지느러미 있는 사람, 야원 사람을 은어(鰻)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속담에서는 동물조합이 특정 직업이나 신분을 상징하는 경우도 보인다. 예를 들어, “이 동자승, 벼룩이 스님.(虱小僧蚤和尚)”이라는 속담은 가난한 절의 동자승과 스님을 각각 이와 벼룩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과리 같은 와카슈(남색관계에서 수동적인 여성 역할을 하는 소년), 모기 같은 스님.(蠅若衆に蚊坊主)”의 조합은 와카슈의 시끄러움과, 와카슈에 대한 스님의 모기 같은 집요함을 나타낸 것이다.

본문 B와 C는 동물의 외형적 행동적 특성이 상징으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C에 보이는 외형적 특성 중, 말 얼굴, 토끼 입, 개미허리는 한일 양국에서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공통의 비유표현이라 할 수 있다. 차이가 나는 것으로는 ‘멧돼지 목(한국에서는 거북이 목)’, ‘모기 다리(한국에서는 병아리 다리)’ 정도이다. 또, 동물의 행동적 특성이 의인화된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가 엎드리는 행위는 아부를 상징하며, 소의 앉는 행동은 엎드리거나 앉아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성을 상징한다. 또 메추리가 갑자기 날아오르는 행위는 역마살 낀 사람을 상징하고, 땅강아지는 가진 돈이 다 떨어진 빈털터리를 상징한다.

이 중 땅강아지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우선, 땅강아지가 양팔을 치켜든 모습을 앞에서 보면 마치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서 돈이 없다는 게스처로 보인다는 설을 들 수 있다. 또는 도박판에서 돈이 다 털린 사람을 맨몸뚱이 벌레라는 의미인 ‘게라(裸虫)’로 불렀다는 설이 있다. 또, ‘삼주(おけら)’라는 국화과의 약용식물은 뿌리를 말끔히 벗기기 때문에 무일푼임을 나타낸다는 설 등이 보인다. 동물의 외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행동적 특성을 상징화하는 경우는 “땅강아지 물 헤엄쳐 건너기.(螻蛄の水渡り)” 같은 속담에서도 또한 나타난다. 처음에는 열심히 헤엄을 치지만 도중에 지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땅강아지의 모습에서, 시작한 어떤 일에 금

20) 연상연결을 통한 동물조합에 대해서는 상계서 참조.

방 질리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중국 소화 속담속의 동물조합에서도 동물의 외형적 행동적 특성에 착안한 의인화의 예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족제비가 살찐 오리를 한 입에 물다.(黃鼠狼單咬肥鴨子 / 『중속』 614쪽)”라는 속담은 부자에게 사기꾼이 사기를 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전통적인 상징성에 반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 호랑이는 표범과 더불어 군자로 취급되던 동물이었다.<sup>21)</sup> 그런데 “매는 조는 듯 앉아 있고, 호랑이는 병든 듯 걷는다.(鷹立如睡, 虎行似病 / 『중속』 522쪽)”라는 속담에서는 악한이 그 본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sup>22)</sup>

또, 당나라 시대의 『잡찬(雜纂)』에서는, 까마귀는 가난한 서생으로, 고양이 는 하녀로, 제비, 쥐, 늑대는 비구니로, 호랑이와 이리는 현지사로, 까치는 악 관으로 각각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견우와 직녀를 위해 오작교를 놓았던 까마귀와 까치가 가난한 서생과 악관을 상징하는 것은 그 울음소리가 마치 소리 내어 글을 읽거나 현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고양이, 제비, 쥐, 늑대가 하녀와 비구니를 상징한다는 점은 흥미로운데, 왜 남성 성의 대명사인 늑대가 비구니를 상징하는지는 필자도 의문이다. 중국에서 늑대는 흔히 소인이나 비정한 악인을 나타내며 이때의 성별은 아무래도 남성이기 때문이다.<sup>23)</sup> 다만 일본에서도 에도시대 때, 밤마다 거적을 한 장 들고 돌아다니며 남자들에게 몸을 팔던 하급 창녀를 ‘요타카(夜鷹)’, 즉 ‘밤 매’라고 불렀던 점을 감안하면 남자를 유혹해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음험한 이미지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21) (또한 중국에서는 호랑이와 표범을 군자, 들개, 늑대를 소인에 비유하는 것처럼(また支那では虎豹を君子、豺(やまいぬ)狼を小人に比することく)) 南方熊楠, 앞의 글, 40쪽.

22) 호랑이를 악한으로 보는 상징성의 상대성 및 가변성을 여기에서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호랑이를 산군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올림핍 마스쿠티르 그 상징성을 변화시킨 한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 선행연구로서 소개한 말레이 동물속담에서도 호랑이는 악한으로 비유되는 점은 흥미로운 공통점이다. (‘Harimau hendak menghilangkan jejaknya 호랑이는 자신의 흔적을 없애고자 한다; 악인은 자신의 사 악함을 숨기게 마련이다.’) 전태현, 앞의 글, 136-138쪽.

23) 南方熊楠, 앞의 글, 40쪽.

한편, 외형적 행동적 특성의 의인화 상징에 있어서, 어떤 동물과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 해당 동물의 상징성이 달라지는 상대성 및 가변성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예를 들어, 만약 벌이 구렁이 또는 호랑이와 조합을 이루게 되면 “먹구렁이의 혀나 나나니벌 꼬리의 침보다 더 독한 것은 여자의 마음(黑蟒口中舌、黃蜂尾上針、最毒婦人心 / 『중속』 246쪽)”이라는 속담이나, “세상에는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으니, 나나니벌과 호랑이와 사나운 노파이다.(世間三件休輕惹、黃蜂老虎狼家婆 / 『중속』 246쪽)”라는 속담에서처럼 벌은 독한 여자나 사나운 노파의 기질을 간접적으로 상징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꽃과 나비와 조합을 이룰 때의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벌의 상징성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또, 벌이 쥐와 조합을 이루게 되면, 벌은 참소하는 속성, 쥐는 아부하는 속성을 각각 상징하게 된다. 『소부』 卷二, 腐流部 「기어들기(아침)와 쏘기(참언)(鑽刺)」에 보이는 다음 소화를 보자.

의형제를 맺는 술잔을 나누는 쥐와 벌이 한 수재에게 꼭 의형제가 되어 달라고 부탁한다. 수재는 하는 수 없이 승낙하고 의형제가 되어 3번째 의자에 앉았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쥐 따위 동물 밑에 앉는 거지요?” 하고 묻자, “저 형제들은 한 명은 기어들기(아침)를 잘하고, 한 명은 쏘기(참언)를 잘해서요. 저로서는 저 둘을 제 편에 세워두지 않으면 안 되지요.”<sup>24)</sup>

벌이 침으로 쏘는다는 표현은 남을 모함하고 ‘찌른다.’는 의미를 상징한다. 남을 참소하는 부정적인 상징성이 보이는 것이다. 또, 남송의 소화집인 『소원천금(笑苑千金)』 「벌과 거미가 기예를 겨룬다.(蜂蛛鬪芸)」에서 벌은 거미와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때의 벌은 말 잘하는 사람을, 거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이는 붕붕대는 벌 소리를 말 잘하는 것으로, 거미줄을 입에서 한참 길려 천천히 빼내는 거미의 모습을 말 잘 못 꺼내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벌과 거미의 조합이라 하더라도 벌의 상징성이 늘 같은 것은 아니다. “거미들이 각자 그물 치는 것을 배우지 말고, 꿀벌들이 같이 꿀을 모으는 것을 배우야 한다.(莫学蜘蛛各牵網、要学蜜蜂共采花 / 『중속』 722쪽)”와 같은 중국속담에서는 벌의 협동성이 긍정적으로 강조되기

24) 松枝茂夫, 『歴代笑話選』, 中国古典文学大系59, 平凡社, 1970, 161쪽.

때문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적긴 하지만 동물조합 속담이 인간의 기질을 의인화 상징한 경우가 보인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야 마는 소나 닭처럼 고집이 몹시 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쇠고집과 닭고집이다”라는 속담은 그 좋은 예이다. 벽창호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소는 인간의 고집을 비유하는 의인화 상징표현에 흔히 쓰인다. 반면, 일본 속담에서의 소는 주로 우직함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때 소의 우직함을 돋보이게 하는 조합 상대는 원숭이이다. “원숭이의 잔피와 소의 우직함.(猿知惠牛根性)”은 말 그대로 원숭이의 부정적 기질과 소의 긍정적 기질을 대비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밥 먹고 막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생전의 게으름이나 도둑질 같은 죄업 때문에 소로 윤회한다는 불교설화에서의 소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것이다. 상징성의 상대성과 가변성은 여기에서도 역시 확인된다.

참고로, 국립 국어원 데이터에 수록된 동물조합 관련 북한속담 중에도 의인화 상징성이 담긴 예가 보인다. 음식을 이리저리 가리는 사람을 핀잔하는 “공작도 날거미만 먹고살고 수달피도 발바닥만 핏고 산다.”는 속담이 그렇다. 또, 여러 사람이 모여 노는 데에서 수줍어서 노래나 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놀리는 말로, “새도 염불(을) 하고 쥐도 방귀를 똥다.”는 속담이 있다. 각각 음식 가리는 사람, 수줍어 노래 못하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의인화 상징 표현이다.

## 2. 성별 연령 상징

한편, 동물속담 및 소화에서는 의인화 상징을 통해 특정 동물이 남녀 성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좋은 개는 닭을 물지 않고, 사내대장부는 아내를 때리지 않는다.(好狗不咬鷄、好漢不打妻 / 『중속』 296쪽)”나, “남편이 가정을 주도하는 것은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과 같다.(男人能做主、是貓能逮鼠 / 『중속』 27쪽)”라는 중국 속담이 그렇다. 이 속담들에서 개와 고양이는 각각 남편을, 닭과 쥐는 아내를 상징함을 알 수 있다. 중국 속담의 의인화 상징성에 따르자면, 닭 쫓다가 지붕을 쳐다보는 한국 속담의 개는 분명 수캐여야 하고,

닭은 암탉이어야 하는 것이다. 또, 제 아내는 싫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뜻의, “집의 닭은 싫고 들꿩을 좋아하다.(厭家鷄、愛野雉 / 『중속』 19쪽)” 역시 닭은 자기 아내를, 들꿩은 딴 여자를 각각 상징한다. 아마도 닭이 달걀을 낳는다는 이미지가 닭의 성별을 여자(아내)로 고정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물론 의인화 동물조합이 성별을 상징하는 이런 경향은 중국소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부(笑府)』 卷十 形体部 「왜가리와 자라의 교합(鸛黿交)」에서는 왜가리(青鸞)가 자라(黿)를 성적으로 노리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 때 왜가리는 수컷, 자라는 암컷이라는 성별 상징을 나타내게 된다. 『소부(笑府)』 卷三 世諱部 「몸이 풀리다(贖身)」의 호랑이와 뱀의 조합 또한 그런 경우라 할 수 있다.

호랑이와 뱀이 서로 사랑한 끝에, 뱀은 몸으로 호랑이를 감고는 점점 강하게 조이며 어디까지고 떨어지지 않을 참.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듣고 있던 사람이 묻자, “어디까지고 감고서 안 떨어지면 조여 죽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아.” “정말로 서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떨어지는 것이 참을 수 없다면, 조여서 죽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필시 뱀의 성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니 호랑이 정도 되더라도 그 부드러운 몸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sup>25)</sup>

뱀이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은 동아시아 공통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호랑이는 남성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정 동물이 특정성별을 상징하는 것은 물론 일본 소화나 속담에서도 보인다. 예를 들어, “여우는 여자, 너구리는 스님(狐は女, 狸は坊主)”과 같은 일본속담에서는 여우를 여자, 너구리를 남자로 표현한다. 또, 에도 하나시본 『오토시마나시 주쿠시가키(落咄熟志柿)』의 「늑대 너구리 고양이(おほかみたぬきねこ)」라는 소화에서는 늑대를 ‘오쿠리 오카미(送り狼-여자를 바래다주는 척하다 갑자기 표변하는 남자)’로, 고양이를 ‘기생’으로 각각 표현한다.<sup>26)</sup>

25) 松枝茂夫, 『歴代笑話選』, 中国古典文学大系59, 平凡社, 1970, 187쪽.

26) 武藤禎夫, 『噺本大系』 第15卷, 東京堂出版, 1979, 83쪽.

하지만 이러한 고정된 성별 의인화 상징은 한일 양국의 속담이나 소화에서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고, 역시 중국이 더 발달하였다. 대신, 일본 소화에는 동물을 암수 부부로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참새, 고양이가 부부로 그려지는 소화의 예가 그것이다. 『요로즈노 다카라(万の宝)』 「대합의 짝사랑(蛤貝の片思ひ)」에 등장하는 부부 대합 역시 그러하다.

몹시 사이가 좋은 부부 참새가 있었는데, 남편 참새가 말하길, “언제까지고 참새로 있어도 재미있을 것도 없지. 예로부터, 참새는 바다에 들어가면 대합이 된다는데 해조류 중에서도 전복은 짝사랑만 한다고 해서 다들 싫어하지만, 대합은 혼례식 때 사용하는 사이좋은 축복받은 해조류이니 대합이 되자.”고 말한다. 여자 참새는 내키지 않지만 부부가 함께 바다에 들어가 대합이 되어 첫날 신방의 새 베개에 미역 이불, 다시마로 된 이불 겹용 잠옷을 걸치고 잠자리에 드는데, 여자 대합, 입을 막고는 뒤로 돌아누워, “이래서는 차라리 참새가 낫지요. 재미없어요.”라고 말한다. 남자 대합,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라고 말하자, 여자 대합, 크게 화난 목소리로, “이게 뭐냐고! 재미없잖아. 입술만 빨아 당기고 말아야.”<sup>27)</sup>

참새가 바다 속에 들어가 대합이 된다는 속담<sup>28)</sup>을 이용하여 부부 참새를 부부 대합으로 바꾼 경우이다. 중국 소화에서도 암개와 수개가 등장하는 예가 있긴 하지만, 암수 한 쌍의 동물을 조합시키는 이 같은 방식은 역시 일본소화

27) (至極中のよき夫婦雀のありけるが、てい主すゞめいふやう、いつまで雀で居ても、おもしろくない。むかしから海中に入て蛤になるといふが、かいそうの中でも、あハビハかた思ひといふてきらハれるが、蛤ハ婚礼の席に用ひられて、中のよい目出たいものじやから、蛤にならふといふ。女雀も不承知ながら、夫婦飛入て蛤となり、新枕にこぶのふとん、あらめの夜着引かつぎ、ねる段になつて、女蛤、口をふさいで、うしろ向になつていふやう、是じやから、やつはりすゞめがよいといふたものを。おもしろくも(十九ウ)ないといふ。男蛤、なぜそのやうに、おれにばかり、ものを思ハせるといふ。女蛤、大きにはらたち声にて、何、おもしろくもない。口斗吸て) 武藤禎夫, 『嗚本大系』 第11卷, 東京堂出版, 1979, 259쪽.

28) “참새가 바다에 들어가 대합이 된다.(雀海に入て蛤となる)”라는 속담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역사서인 『국어(國語)』 「진어(晉語)九」 편과, 원(元)나라 시대의 오증(吳澄)이 편찬한 『월령 칠십이후 집해(月令七十二候集解)』의 ‘한로(寒露)’를 설명한 구절에서도 또한 보인다. 줄고, 『일본 속담(諺)속의 동물조합』, 『日本學研究』 46, 2015, 293쪽.

에서 발달하였다. 예를 들어, 『하쓰 노보리(初登)』 「두견새(郭公)」에서는 학과 두견새를 암수 부부로 묘사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학이라고 하는 새는 훌륭한 새여서, 암컷이 ‘쓰’ 하고 울면, 수컷이 ‘루’ 하고 운다고 하는데, 저 두견새가 울 때도 암수 울음소리가 틀린가?” “다르고 말고, 다르고 말고.” “어떻게 다른데?” “보라고, 암컷이 ‘호존카케타카(본존 부처에 걸었어)? 호존카케타카(본존 부처에 걸었어)?<sup>29)</sup>’하고 울면 수컷이 ‘호존카케나(본존 부처에 걸라고), 호존카케나(본존 부처에 걸라고).’하고 울잖아.”<sup>30)</sup>

중국 송나라의 선비 임포(林逋)가 학을 자식으로 삼고 매화를 아내로 삼아 은둔생활을 즐긴 것은 유명인데, 이때의 학은 아들이니 분명 남성성을 보인다. 하지만 일본 소화에서는 학이 부부로 등장하여 양쪽성별을 모두 나타낸다는 차이점이 있다. 참고로, 남편이 작고 아내의 덩지가 큰 부부를 일본어로 ‘벼룩 부부(蚤の夫婦)’라 표현한다. 벼룩의 경우 암컷이 수컷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생긴 것이다. 아마 중국인 같았으면 개와 닭, 고양이와 쥐처럼 서로 다른 두 종류 동물을 어떻게든 조합하여 부부로 의인화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 종류의 동물이 암수 성별을 상징하는 일본 동물조합의 이 같은 경향은 일본의 지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즉, 현재까지 일본에서 발행된 지폐에 등장한 동물(봉황, 쥐, 멧돼지, 말, 닭, 비둘기, 사자, 꿩, 학)중 암수 2마리가 등장하는 경우가 자주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만 엔권 지폐에는 암수 봉황이 등장한다. 봉황은 우리나라의 청와대 휘장에서 보듯 원래부터 암수가 함께 등장하니 특별할 것이 없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사용되었던 일본의 천 엔짜리 구권지폐(나쓰메 소세키 초상(夏目漱石

29)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로 호존은 본존(本尊)과 발음이 비슷하다.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 새 울음소리의 예로서는 이 외에도 피꼬리의 ‘호-호케교(ホーホケキョ, 범-범화경)’나 삿갓의 ‘텃펜카케타카(テッペンカケタカ)’ 등이 있다.

30) (鶴といふ鳥ハ名鳥で、雌鳥が、つと啼てたてば、雄鳥が、ると啼て立といふが、アノ郭公の啼のも、雌と雄でちがふかの。違ふとも違ふとも。どこか違ふ。ハテ、雌鳥が、ほぞんかけたか、ほぞんかけたかと啼と、雄鳥ハ、ほぞんかけな、ほぞんかけな。) 武藤禎夫, 『嘶本大系』 第11卷, 東京堂出版, 1979, 294쪽.

肖像) D号券, 1984년 발행)의 뒷면에는 암수 한 쌍의 학이 등장한다.([그림 2]) 또, 만 엔짜리 구권지폐(후쿠자와 유키치 초상(福澤諭吉肖像) E号券, 2004년 발행)의 뒷면에도 역시 암수 한 쌍의 꿩이 등장한다.([그림3])



[그림 2]



[그림 3]

동물이 등장하는 세계 각국의 지폐를 살펴보면 앵무새처럼 같은 종류의 동물이 암수 함께 등장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하지만 대개는 한 마리가 등장하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 2마리 이상이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혼례식 때의 원앙이나, 잉꼬처럼 암수 한 쌍이 특별한 상징성을 나타내지 않는 한, 굳이 같은 종류의 동물을 두 마리나 등장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서구의 왕실문장에서는 수사자 2마리가 좌우 대칭을 이루거나 중국에서도 용 2마리가 좌우 대칭을 이루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의인화 상징에 있어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굳이 암수로 나누어 등장시키는 일본인의 이 같은 발상은 독특하다 할 수 있다.

의인화 상징에 있어서 동물조합이 암수 부부를 나타내는 이런 경향이 왜 일본에서 더 발달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남자 주인공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그 후속편으로 여자 주인공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남녀변용 야쓰시(やつし)’라는 일본문화의 방법적 특징이 이러한 암수 성별 조합에도 반영된 것은 아닐지 추정하고 있다.<sup>31)</sup> 일본에서는 매년 12월 31일이

31) 자세한 내용은 줄고, 「일본근세문학속의 「男女変容」 방법과 일본문화의 표현기법 야쓰시(やつし)」, 『일본언어문화』 20호, 2011, 327~347쪽 및 「일본근세문에 속에 보이는 「오인녀(五人女)」 인물구성의 기원과 계보」, 『일본연구』 59호, 2014, 111~130쪽을 참조 바람. 물론 중국에서도 수컷을 봉, 암컷을 황으로 봉황을 암수 구별하는 예는 있으며, 한국에서도 꿩을 장끼와 까투리로 구별하는 예가 보인다. 하지만 소하나 속담에서 한 종류의 동물 암수 한 쌍으로 조합을 만들어 성별을 나타내는

면 남자와 여자 두 팀으로 나눈 가수 대항전을 방송한다. 흥백 노래 대항전(紅白歌合戰)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 고전속의 전통적인 노래 대항전인 우타아와세(歌合せ)에서는 대개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지만 이미 일본의 국민적 연예행사가 된 이 프로에서는 남녀성별로 두 팀이 나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본인의 동물조합 의인화 상징에서 보이는 발상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의인화 상징 속담에는 한일 양국의 동물조합에서는 보기 힘든 특징이 하나 있다. 동물의 의인화 상징에서 특정 연령대까지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다. 속담 속에 등장하는 동물의 경우, 대개 연령까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중국속담의 경우 연령대를 상징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호랑이는 죽더라도 범 무늬는 흩어지지 않고, 소는 비록 늙더라도 두 뿔은 보기에 아름답다.(虎雖死花紋不散、牛雖老兩角美觀 / 『중속』 442쪽)”는 중국속담에서 호랑이와 소는 연령대가 노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소가 늙으면 힘이 없고, 사람이 늙으면 위엄이 없다.(牛老無力、人老無威 / 『중속』 557쪽)”나, 앞서 나가는 사람이 후배에게 가르침을 청한다는 뜻의, “천리마가 늙은 황소를 찾아와 인사하다.(千里馬拜訪老黃牛 / 『중속』 342쪽)”에서 보듯, 중국속담에서 소는 노인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점은 『소부(笑府)』 卷三 世諱部 「어린 아가씨(小娘)」에서도 잘 나타난다.

암개가 소와 관계해 자식을 낳았다. 크니 남이 그 아이에게, “양친은 어디에 있지?”하고 물었다. 그러자 소를 가리키며, “이쪽이 아버지예요.”라고 말하고, 개를 가리켜 “이 쪽이 엄마예요.”라고 말한다. 물었던 사람이 이상하다는 듯, “이런 노인하고 이런 어린 어머니(아가씨)가 부부라니.”<sup>32)</sup>

이 소화에서 소는 노인을, 암개는 어린 처녀를 각각 상징함을 알 수 있다. “갓 난 송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初生牛犢不怕虎 / 『중속』 518쪽)”나,

경우는 역시 일본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다.

32) 원문은 일본국립공문서관(구내각문고) 본 『소부』(13권 4책, 명말청초 간행)를 인용했다. 번역은 松枝茂夫, 『歷代笑話選』, 中国古典文学大系59, 平凡社, 1970, 186쪽의 일본어역을 한국어로 증역하였음.

“귀여워하는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嬌狗上灶 / 『중속』 574쪽)”같은 중국속담에서, 소와 개가 아닌 송아지와 강아지가 등장하는 이유는 물론 어린 연령대 동물들의 미숙함이나 버릇없음을 상징하기 위해서이다. 동물 속담에서 해당 동물의 연령을 의인화 상징에 적극 활용하는 점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중국 동물조합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IV. 동물조합 신체 상징비교

사슴뿔처럼 한약재로 쓰일 때의 녹용은 또 다르겠지만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 제목이나, 일본 여성들이 신도식(神道式)의 결혼식 때 머리에 쓰는 하얀 모자 이름이 ‘뿔 가리개(角隠し)’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일 양국에서 동물의 뿔은 대개 ‘화’를 상징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나타낼 때의 관용표현에 뿔이 흔히 이용된다.

“까마귀의 머리가 하얗게 되고, 말머리에 뿔이 난다.”는 뜻의 ‘오두백마두각(烏頭白馬頭角)’이 불가능한 일을 나타내는 경우나<sup>33)</sup>, ‘어쩔든’이라는 의미의 일본어 ‘도니카쿠(兔に角)’의 어원으로도 알려진 ‘귀모토각(龜毛兔角-거북등에 털이 나거나 토끼 머리에 뿔이 나는 것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러하다. 또, 이웃집 남자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여인이 소송을 했다는 데서 유래한 ‘서아작각(鼠牙雀角-쥐가 이빨 나고 참새가 뿔나던가?)’과 같은 중국의 고사성어가 또한 그러하다.<sup>34)</sup>

33) 연나라 태자 단(丹)이 진(秦)나라에 볼모로 가 있었을 때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 달라고 사정하자 진시황이 했던 말이다. “까마귀 머리가 희어지거나 말 머리에 뿔이 나면 돌려보내 주겠다.”(丹求歸 秦王曰, 烏頭白 馬生角 乃許耳. 『史記』「索隱」) 참고로, 까마귀의 부리를 나타내는 오웁(烏喙)은 욕심이 많은 인상(人相)을 가리키며 까마귀의 머리와 부리가 각각 상징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34) 鼠牙雀角之爭-쥐의 송곳니와 참새 뿔의 싸움-누가 말하는가, 참새에게 뿔이 없다면 어째서 내 집 지붕이 뚫어졌는가? 누가 말했는가, 쥐에게 큰 송곳니가 없다면 어째서 내 집 담장은 뚫렸는가라고 하지만 뿔과 송곳니가 없어도 뚫린다는 뜻으로 부조리하고 무리한 소송을 당한 처녀의 하소연. 참고로,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우리 속담 또한 중국의 참새와 쥐의 조합에서 비롯되었음은 물론이다. 조선시대 문인인 이곡(李穀)의 가정집(稼亭集) 제19권에 실린 「감창(監倉) 유감」이라는 율시에서는,

한편 중국에서는 ‘쥐 이빨과 참새 뿔’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상징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쥐꼬리 같은 월급’이라거나 ‘쥐방울만하다’, ‘쥐뿔(쥐 불알)도 없다’는 표현에서 보듯, ‘작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 조선시대 문헌인 『몽계필담(夢溪筆談)』에서는 “차의 갖 돋은 싹을 옛사람은 작설(雀舌)이라 하였으니, 지극히 연약한 것을 의미함이다.”라는 작설차(雀舌茶)의 유래가 보인다. 쥐나 참새의 신체부위가 한국에서는 작고 연약함을 주로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35)</sup>

일본어에도 물론 동물 신체부위를 상징에 이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손바닥만 하다.”는 뜻의, ‘고양이 이마(貓の額)’도 그렇다. 그리고 필자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동물신체 상징표현은 ‘벼룩의

참새와 쥐가 조합을 이룬, 작서모(雀鼠耗-서모라고도 함)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두 동물이 낮과 밤에 곡식을 축내는 해로운 동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가에서 곡식을 보관하던 중 참새와 쥐가 먹어서 손실이 발생한 곡식을 작서모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정식으로 거두는 세금 이외에 작서모라고 핑계 대고 백성에게 더 징수하는 양곡을 말한다. 감창유감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묵은 곡식 날마다 늘어만 가고(紅腐相因日)/청렴한 관원이 일제히 나오는 때(清廉並進時)/서모를 다투는 아전이 있으리오(吏無爭鼠耗). 또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성종22년 신해(1491년)4월 26일조에,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김극검(金克儉) 등이 북방정벌을 반대하며 올린 상소(上疏)에,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천균(千鈞)이 나 되는 틀은 새앙쥐 때문에 발사하지 않고, 밤에도 빛이 나는 구슬은 참새 때문에 던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잃는 것이 많고 얻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이 보인다.(古人有言 : “千鈞之機, 不爲鼯發; 明月之珠, 不爲雀彈.” 者爲其所失者多, 所得者少, 況失多之中, 復有他虞哉!) 이미 참새와 쥐의 조합은 중국에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5) 『흥부놀부전』에서는 놀부가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렸지만, 이 이야기의 일본판 버전인 『혀 잘린 참새(舌切り雀)』에서는 제목 그대로 참새의 혀가 잘렸다. 일본중세설화집인 『우치슈이모노가타리(宇治拾遺物語)』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는 「허리 부러진 참새(腰折雀)」이었다. 참새가 할머니에게 혀를 잘린 이유는 물론 밥풀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에서이다. 한일 간의 설화 공유라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는 향후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인간의 곡물을 훔치는 부정적인 존재로서 한국 속담에서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랴와 같은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참새가 등장하지만, 일본 속담에서는 비둘기가 등장한다. “비둘기 미워 콩 안 키운다.(鳩を憎み豆を作らぬ)”라는 일본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껏 키운 콩을 비둘기가 먹는데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작용한 듯하다. “비둘기는 부모 보다 가지 세 단 아래에 앉으며, 까마귀는 늙은 부모를 봉양한다.”는 중국 속담에서의 비둘기의 상징성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간’ 정도이다. 그런데 일본에도, ‘벼룩의 간’에 필적하는 속담이 있다. ‘벼룩의 눈, 모기의 눈썹(蚤の眼、蚊の睫毛)’이란 속담이 바로 그것이다. 이 동물신체 상징의 생성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벼룩의 눈’의 경우, 원래부터 작다는 의미로 쓰이지는 않았다. 실은, ‘벼룩을 잡아낼 정도로 예리하고 좋은 눈’이라는 의미의 ‘벼룩 잡아내는 눈(蚤取り眼)’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하자면, 사냥감을 잘 찾아내는 가마우지나 매의 날카로운 눈을 뜻하는, ‘가마우지의 눈, 매의 눈(鶇の目、鷹の目)’같은 속담과 그 용법이 같은 것이다. 벼룩을 찾아낼 정도의 시력을 의미하는 ‘벼룩 잡아내는 눈’이 ‘벼룩의 눈’으로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동물신체 상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sup>36)</sup>

그리고 이 일본 속담에서 벼룩의 눈이 모기의 눈썹과 조합을 이룬 것도 나름 이유가 있다. 보통, 벼룩의 일본어 발음이 ‘노미(のみ)’인 관계로, 발음이 ‘미(み)’로 끝나는 ‘시라미(しらみ)’, 즉 ‘이(虱)’와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다. ‘벼룩’이 개의 이빨에 물리는 일은 드물지만, 원숭이의 손에 ‘이’가 잡히는 일은 흔하다는 의미의 ‘개 이빨에 물리는 벼룩, 원숭이 손에 잡히는 이(犬の齒に噛まるる蚤、猿の手に探らるる虱)’는 그 좋은 예이다. 그런데 이 속담에서는 ‘벼룩’의 눈이 ‘모기’의 눈썹과 조합을 이루었다. ‘이’도 작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모기’일까? 눈과 눈썹의 조화는 그렇다 해도 모기는 선듯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모기의 눈썹’은 원래 크기가 작다는 의미로 쓰이지는 않았다. 목소리가 작은 경우 모기소리 같다고 하는 것처럼 모기는 흔히 ‘작은 소리’를 상징한다. 한편, 귀가 밝은 사람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듣는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일본고전 수필집인 『마쿠라노소시(枕草子)』 第二五七段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기 눈썹 떨어지는 소리도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sup>37)</sup> 따라서 ‘밝은 눈’을 의미하는 ‘벼룩

36) 참고로 중국에서는 “우물 안 개구리의 하늘은 좁고, 산꼭대기를 나는 매의 시야는 넓다.(井底蛙天窄、山頂鷹眼寬 / 『중속』 273쪽)”라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야의 넓고 좁음을 나타내기 위해 매와 개구리를 조합시켰다.

37) (오구라경처럼 귀가 밝은 사람은 없다. 정말이지 모기 눈썹이 떨어져도 그 소리를 들으실 정도이니. 大蔵卿ばかり、耳敏(と)き人はなし。まことに、蚊のまつげの落つ

의 ‘눈’과, ‘밝은 귀’를 상징하는 ‘모기의 눈썹’이 서로 조합을 이루면서 ‘작음’이라는 상징성이 나중에 새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식을 넘어서는 이 같은 ‘작음’의 상징 표현이 가능했던 것은 시각과 청각이 뛰어난을 상징하는 두 표현이 동물조합 형태로 서로 조합되면서 그 의미가 점차 달라졌기 때문이다.

‘벼룩의 눈, 모기의 눈썹(蚤の眼、蚊の睫毛)’에서 보이는 이러한 시각과 청각을 상징하는 조합유형은, 아마도 중국의 동물조합 방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술개의 눈, 토끼의 귀(鸞目兔耳)’나, ‘멀리 보는 눈, 멀리 듣는 귀(長目飛耳)(『관자(管子』九守)’와 같은 비슷한 패턴의 사자 성어가 중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벽에는 귀가 있고, 장지문에는 눈이 있다.(壁に耳あり障子に目あり)”와 같은 일본 속담도 결국은 다 그러한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담에도 틈이 있고, 벽에도 귀가 있다.(牆有縫壁有耳)”와 같은 유사한 속담이 중국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물론 이 속담은 중국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일본과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 속담에서 두 동물의 신체부위를 조합시킨 경우가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다. 엉망진창이라는 의미의 “소 대가리에 말 궁둥이 갖다 붙인다.”나, 전혀 재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매 주둥이에 오리발 같다.”정도이다. “닭의 입이 될지라도 소의 꼬리는 되지 마라.”라던가, ‘용두사미(龍頭蛇尾)’와 같은 동아시아 공통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물신체 부위의 조합을 이용한 상징표현은 중국에서 먼저 발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부위의 상징성은 각 동물별로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돼지머리와 양머리가 체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또, ‘쇠뿔도 단김에 뽑아라.’(한중 공통)라던가, “말 꼬리에 파리가 천 리 간다.”라는 한국 속담을 보면, 소는 ‘뿔’, 말은 ‘꼬리(말총)’가 각각 해당 동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신체부위를 알 수 있다. “용의 수염을 쓰다듬고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龍の鬚を撫で虎の尾を踏む)”라는 일본 속담 역시, 용과 호랑이의 분노를 상징하는 신체부위로서의 ‘용의 수염(역린)’과 ‘호랑이 꼬리’라는 대표상징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sup>38)</sup> 참고로, 중국과

るをも、聞きつけ給ひつべうこそありしか。)『枕草子』第257段

일본 속담의 동물조합속담에서 가치상징이 발달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밝혔는데, 동물 신체부위의 상징성에서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호랑이는 죽어 호피를 남기고 코끼리는 죽어 상아를 남긴다.(虎死留虎皮, 象死留象牙 / 『중속』 442쪽)”는 중국 속담에서 호랑이와 코끼리의 신체 부분인 ‘가죽’과 ‘상아’는 높은 가치를 상징한다.

그리고 동물의 신체적 특성에 주목한 이 같은 조합속담은 동물의 합체, 합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또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멧돼지 목에 말 다리, 호랑이 굽은 등(猪首馬足虎背中)’이라는 일본 속담은, 각각의 동물들의 신체 부위의 외견상 특징에 주목한 조합으로, 목은 짧고 다리만 경충 길며 등이 굽은 못 생긴 외모를 나타낼 때 쓰이는 속담이다. 동물신체의 조합과 합성이라는 이러한 발상의 전개는 일본근세 문헌에서도 또한 확인된다. 『일화일언(一話一言)』권 5에는 선박을 만들 때 십이지 동물의 각 신체부위를 합친 복합체로서 배를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보인다. 배 선체의 하부 뼈대역할을 하는 긴 목재를 ‘용골(龍骨)’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실은 그 외에도 배의 곳곳에는 ‘토끼 귀’에 ‘호랑이 꼬리’, ‘양 머리’에 ‘개 이빨’등, 십이지 동물의 신체 각 부위의 이름이 모두 망라된 구조물이 모여 있는 것이다.<sup>39)</sup> 물론 이것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온갖 동물들의 신체부위의 합성체인 용과 기린이 일찌감치 중국에서 탄생한 데에는 동물 신체 상징성에 대한 중국인의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sup>40)</sup> 그리고 그러한 관심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38) 물론 풀 바른 실타래 떡을 이르는 오늘날의 ‘용 수염(龍鬚)’에서 보이는 상징성의 가변성과 상대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용의 뿔을 약으로 만들어 내기까지 한다. 한 때 유사제품과의 차이를 강조한,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라는 방승광고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용각산(龍角散)이 그러하다.

39) (鼠橋 牛欄 虎尾帆 兔耳 龍骨 馬面 羊頭 猴袋 鷄棍 狗牙 梳猪) 日本隨筆大成刊行編集部 『日本隨筆大成』別卷「一話一言」5, 吉川弘文館, 1978, 229쪽. 그리고 동물의 신체부위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미타테(見立て)의 형태로 또한 나타난다. 술잔을 ‘멧돼지 입(猪口)’, 수도꼭지를 ‘뱀 입(蛇口)’, 동전주머니를 ‘두꺼비 입(ガマ口)’, 곡괭이를 ‘학의 부리(鶴嘴)’, 쟁기나 조릿대를 ‘구마테(熊手)’로 표현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40) 사슴의 뿔과 낙타 머리, 토끼 눈, 소 귀, 뱀 목덜미, 큰 조개 배, 잉어 비늘, 매 발톱, 호랑이 주먹을 가진 용은 그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사슴 몸통과 소꼬리가 조합된 기린이나 닭의 머리와 제비의 부리가 조합된 봉황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장수와 복록을 상징하는 학과 사슴의 조합인 ‘학록동춘(鶴鹿同春)’이 중국의 길상도(吉祥圖)에 보이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그림4]) 그리고 학의 다리와 사슴의 뿔을 합체한 새로운 상상속의 동물을 중국인들은 적어도 기원전 200년 전에 새로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그림 5]중국 隨州市 (suí zhōu shì)의 고분에서 출토된 학사슴의 모형 상징물)<sup>41)</sup>



[그림 4]



[그림 5]

## V. 결론

이상 본고에서는 한중일 3국 소화 및 속담 속에 보이는 동물조합의 비교를 통하여 그 상징성 및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41) 경복궁 자경전 담장에 새겨진 코끼리 코에 곰의 몸통을 가진 불가살이(不可殺伊-중국에서는 사람의 꿈을 먹는 맥이라는 동물이 있다)나, 원숭이 얼굴에 호랑이 몸통, 그리고 뱀 꼬리를 했다는 일본의 누에(鵄)같은 상상속의 동물 역시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동물신체조합의 측면에서 향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있었다.

첫 번째로 한중일 3국간의 유사한 동물조합의 비교를 통해 상징성의 상대성 및 가변성이 나라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었다. 소화나 속담에서의 동물조합은 대개 강약, 대립, 유사함 등의 상호관계성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해당 동물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정적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똑 같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때 그 때 조합 상대가 바뀔 때마다 전혀 다른 상징성을 보여준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런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각 문화권마다의 상징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해당 동물과 조합하는 상대동물간의 ‘가치’를 비교하려는 경향이 눈에 띄는 반면 한국에서는 ‘다름’을 비교하려는 경향이 보인 것이 그러하다. 쉽게 말하자면, 두 남자와 맞선을 본 아가씨가 둘의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능력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전자의 관점이 되는 것이고, 외모의 다름을 비교한다면 후자의 관점이 되는 것과도 같다.

두 번째로, 중국과 일본의 경우, 동물의 외형적 행동적 특성에 착안한 의인화 상징이 무척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에서는 동물의 외형적 행동적 특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을 의인화 상징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 일본의 경우,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조합으로 성별을 상징하는 중국의 방식과는 달리, 같은 종의 암수 동물 한 쌍을 통해 남녀 성별을 상징하는 방법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중국과 일본의 경우 동물 신체 상징이 비교적 발달하였다. 신체부위 상징성은 해당 동물의 다양한 외형적 행동적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미타테와 같은 일본의 비유표현방식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특정 동물의 신체부위 상징이 발달하였다는 것은 그 문화권에서의 해당 동물에 대한 관심도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고양이 이마처럼 좁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고양이 혀(뜨거운 것을 못 먹는 사람의 비유)’처럼 쥐보다는 고양이가 신체관련 속담과 표현이 발달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쥐꼬리 만 하다.” “쥐방울만한” “쥐뿔(쥐 불알)도 없는”처럼 반대로 쥐 신체관련 표현이 발달한 것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동물조합은 오늘날에도 그 영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궁합이다. 닭띠와 개띠가 결혼하면 해로하지 못한다거나, 호랑이띠와 토끼띠가 결혼하면 평생 눈물을 흘린다는 중국속담은 물론 미신이다. 닭띠와 소띠가 결혼하면 잘 산다는 속신 때문에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소띠 아가씨와 맞선을 본 닭띠 총각도 우리 주변에는 물론 있을 것이다. 동물조합은 잘 이용하면 음식에서의 궁합처럼 인간에게 이롭지만 잘못 이용하면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상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동아시아 각국의 상징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동물조합이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인 것만은 분명하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 소화 및 속담에 보이는 동물조합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각 문화권에서의 특정 동물의 상징성이 결코 절대적이지도 고정적이지도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아시아 각 문화권에서 특정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동물조합 분석을 통해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

## ❖ 참고 문헌

- 김용의,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 『新釋遠野物語』의 『遠野物語』 수용 양상 - ‘설화적 웃음’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연구』 44호, 2015.
- 임팔용, 「日韓兩語のことわざの対照考察—表現形式を中心として—」, 『일본연구』 42호, 2009.
- , 「日韓兩語の名詞文ことわざの文型に関する対照研究」 『일본연구』 45호, 2010.
- , 「日本のことわざの対句表現に関する研究」 『일본연구』 49호, 2011.
- , 「日韓兩語のことわざの対句表現に関する対照研究」 『일본연구』 54호, 2012.
- 다바타 미쓰코, 「ことわざの比喩に関する一考察-江戸いろは」と「上方いろは」を中心—to」 『일어일문학연구』 78권 1호, 2011.
- , 「日韓類似ことわざの提喩關係 -日韓學習者の作例をもとに-」 『일어일

- 문학연구』 81권 1호, 2012.
- 전태현, 「팔레이어 속담의 동물은유 분석: ‘코끼리’, ‘물소’, ‘호랑이’를 중심으로」 『동남아 연구』 25권 1호, 2015.
- 금영진, 「일본근세문학속의 「男女姿容」 방법과 일본문화의 표현기법 「야쓰시(やつし)」, 『일본언어문화』 20, 2011.
- , 「일본근세문에 속에 보이는 「오인녀(五人女)」 인물구성의 기원과 계보」 『일본연구』 59호, 2014.
- , 「동아시아의 세 사람 주령(酒令)형 소화」 『동양학』 57호 2014.
- , 「일본도상(圖像)문화를 통해 본 동물조합의 방법과 의미-언어유희·미타테(見立て)·복합을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34호, 2015.
- , 「일본 속담(諺)속의 동물조합」 『日本學研究』 46호, 2015.
- , 「일본 소화(笑話) 속의 동물조합」 『외국문화연구』 60호, 2015.
- 진기환, 『중국인의 속담』, 명문당, 2008.
- 松枝茂夫, 『歴代笑話選』 中国古典文学大系 59卷、平凡社, 1970.
- 南方熊楠, 『南方熊楠全集』 1卷, 平凡社, 1971.
- 武藤禎夫, 『嘶本大系』 4卷, 11卷, 15卷, 16卷, 東京堂出版, 1979.
- 李 昉, 『太平御覽』 1-9, 上海古籍出版社, 1994.
- 大島建彦, 「十二支と日本人」 国立国会図書館国際こども図書館講演会 2004.1.22.
- 金文京, 「東アジアの異類論争文学」 『文学』 岩波書店, 2005.
- 北村孝一, 『故事俗信ことわざ大辞典』(第二版), 小学館, 2012.
- <http://dog-assemble.com/blog/141217.html> (검색일: 2016.02.10.)
- <https://ja.wikipedia.org/wiki/%E5%8D%83%E5%86%86%E7%B4%99%E5%B9%A3> (검색일: 2016.02.10.)
- <https://ja.wikipedia.org/wiki/%E4%B8%80%E4%B8%87%E5%86%86%E7%B4%99%E5%B9%A3> (검색일: 2016.02.10.)
- <http://image.search.yahoo.co.jp/search?p=%E9%B6%B4%E9%B9%BF&aq=-1&oq=&ei=UTF-8#mode%3Ddetail%26index%3D56%26st%3D2239> (검색일: 2016.02.10.)
- [http://www.sz-news.com.cn/www/zhuanti/ggkf/A041116index\\_1.htm](http://www.sz-news.com.cn/www/zhuanti/ggkf/A041116index_1.htm) (검색일: 2016.02.10.)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ymbolism of the Combination of Animals One Another in East Asian Comedic Stories and Proverbs

Keum, Young-Jin

The combination of animals has been developed in each of the cultural spheres as a method of metaphor and symbolism of the cultural code. However, its symbolism is not a fixed constant, but a variable and relative constant. This work focused on its features in comparison with East Asian cultural spheres comedic stories and proverbs. Consequently, several features were identified.

First, the combinations of animals in similar comedic stories and proverbs among Korea, Japan and China show a difference in point of view. Korean focuses on the difference of the two animals, but Chinese and Japanese focus on the differences in value and level.

Second, the method of anthropomorphization is relatively more developed in China and Japan than Korea. The combinations of animals of Chinese comedic stories and proverbs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anthropomorphization, are most focused on age and sex of the animal. The animal's age or sex remains mostly undetermined in Korean animal's proverbs, unlike Chinese proverbs. On the other hand, two animals in Japanese comedic stories and proverbs are usually of the male and female gender from.

Third, the combinations of animals of Chinese and Japanese focus on the animal's body and its characteristics of action. Chinese and Japanese comb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animal's bodies and actions. This feature apparently caused the resultant combinations of the animal's body parts, for example, the Dragon. Understanding of the combinations of two animals is a good portal into the features of East Asian culture sphere.

---

**Key Words**

East Asia, comedic stories, proverbs, combinations of animals, symbolism

논문접수일: 2016년 0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3월 07일

게재확정일: 2016년 03월 10일